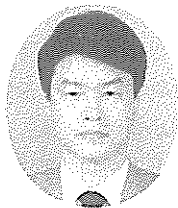




Q: 이차 수술할 때 임플란트 지대치가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



부교수 조성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우선 맞추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1. 픽스처의 6각과 임플란트 지대치의 6각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지대치가 너무 작으면

로 임플란트 지대치를 잡아주는 holder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Holder를 사용하여 정확히 육각을 서로 맞춥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은 픽스처 6각 주위로 골이 과도성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육각이 안맞습니다. 그러므로 핀셋으로(치과용 explorer은 너무 가늘고) 핀셋의 끝부분으로 픽스처의 6각주위를 탐색하여 임플란트 지대치가 장착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과도증식된 골을 지름이 작은 round bar로 떼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골이 과도증식되어 임플란트와 골과의 결합의 성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므로. 좀 불편하지만 픽스처가 잘 골과 결합하였다는 증거이므로, 조심스럽게 과도증식된 골을 제거하여 지대치와 픽스처의 적합을 맞추어야겠습니다.

2. 간혹 6각 주위에 과도증식된 골을 삭제하다가 6각주위의 shoulder 부위에 홈을 내게 되는데 이 홈이

음각인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홈이 튀어나온 양각의 경우는 지대치와 픽스처가 안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민거리인데 확대경으로 양각의 홈집을 잘 찾아서(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음각으로 만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증식된 골을 제거 할 때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파야 됩니다.

3. 치은연하에 임플란트 지대치와 픽스처의 경계가 놓이게 되는 경우 (conbentional이 아닌) Conical 모양의 지대치는 치은 연하에 보철물의 변연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픽스처 주위의 연조직이 끼여 들게 됩니다. 이것은 불청객으로 이것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4.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치은연하에 보철물의 변연을 위치시키는 형태의 임플란트지대치는 상악전치부에만 필요하지 그 이외의 부위는 지대치의 종류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구치부에 상악 약간 간격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 Conical한 형태의 지대치를 쓰자고 결정이 나도가급적 치은 연상으로 보철물의 변연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